

평양 방문 계기로 장편소설 '삼국유사 읽는 호텔' 낸 윤후명씨

일연 스님이 저술한 <삼국유사>는 정사가 아니라 야사적인 성격이 강해 일종의 문학 작품처럼 느껴진다. 삼국유사 관련 수많은 번역서들이 국내에 출간됐지만 이번에 선보인 윤후명씨(60·사진)의 장편소설 <삼국유사 읽는 호텔>을 접하고 보니 <삼국유사>가 더더욱 문학작품처럼 생각된다.

이 소설은 2003년 10월, 분단 이후 육로로는 처음으로 시인 이근배씨 등과 함께 정주영 체육관 개관기념식 참석차 3박4일동안 평양에 다녀온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소설은 시종일관 1인칭 '나'가 리드해 간다. '나'는 대동강이 내려다보이는 평양의 양각도 호텔에 머물며 낮에는 평양 시내와 묘향산 등지를 여행하고 밤에는 호텔로 돌아와 <삼국유사>를 읽는다.

'나'는 왜 평양까지 가서 <삼국유사>를 읽는 것일까.

"고교시절 양주동 박사의 '신라 향가' 특강을 듣고 <삼국유사>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국내 최초 삼국유사 번역본인 이병도 박사의 책을 비롯해 40여년동안 삼국유사와 관계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읽고 찾아갔습니다. 또 가아의 수로왕과 인도에서 왔다는 허황후의 로맨스가 담긴 옛 가야 땅 김해를 여러 번 답사하기도 했지요."

이 책에는 주인공이 평양과 북녘에서 바라보고 겪은 풍물과 소회가 현재 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 <삼국유사>를 읽는 시공간은 어느덧 주인공이 30여년 전 맨 처음 <삼국유사>를 읽고 그 의미를 찾아 지금까지 해왔던 과거의 시공간을 넘나들게 된다. 여기에 다시 <삼국유사> 고유의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신화적·역사적 이야기, 즉 고조선과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의 등장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소설은 주인공 '나'가 호텔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북한의 민족고전연구소 간행 번역본 <삼국유사>를 읽는데 시작된다. 이 소설에는 대부분의 독자들이 교과서를 통해 한번쯤 접해봤을 '구지가(龜旨歌)' 해설이 등장하는가 싶으면, 어느새 허황후가 인도에서 배를 타고 와서 김수로왕의 왕비가 된 이야기로 흘러간다. 특히 이 책은 역사책에 나와 있는 빛바랜 설화를 끄집어내 작가 특유의 문학적 감성으로 현대에 맞게 복원하는 묘수가 곳곳에 드러나 읽기 편하다.

그리고 '나'는 간간히 M이라는 여자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온다. 대동강 물소리가 들린다." M은 한때 '나'와 함께 삼국유사의 흔적인 김해와 김수로 왕릉 등을 둘러보던 여자다. 하지만 지금은 헤어져 있다. M에게 띄우는 이메일의 내용은 <삼국유사>의 '현화'가 처럼 사랑의 고백으로 변주된다. 한편으로 '나'는 이상세계를 건설하다 깨지고만 러시아의 모스크바, 쿠바의 아바나를 떠올리며 "평양 그리고 서울은" 하고 자문한다. 그리고 '나'는 세상 외딴 끝에서 부서진 나라, 분단된 조국의 실체를 절감하며 그 출구를 찾기 위해 <삼국유사>를 읽고 있는 것이다.

"삼국중 신라와 백제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면 현장을 찾아갈 수 있지만 지금의 북한지역이었던 고구려는 지난 평양 방문 기회가 아니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묘향산 방문은 단군의 발자취를 취재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소설은 작가 특유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문체, <삼국유사>와 우리 옛말, 꽃과 식물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돋보인다. 그러나 이렇다 할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채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과 재해석, 주인공-화자의 개인사에 대한 단편적인 회고, 북쪽 체제의 경직성과 분단 현실에 대한 사유 등이 갈마드는 소설은 예제 이적 면모를 강하게 띤다.

일화 하나. 소설속에는 사내로 표현되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는 윤씨와 평양 방문중 틈메이트였던 양산 효암고 채현국 이사장이다. "채 이사장이 우리나라 고대사와 역사에 해박한 지식과 관심이 높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것도 이번 작품 집필에 큰 동기부여가 됐지요."

윤후명 씨는 지금 또다른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민족이 속해 있는 알타이어족의 원류를 찾아 취재해 소설 형식을 빌려 단편을 완성중이다. 또 올 10월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출품도서로 선정된 그의 책 <돈황의 사랑>을 세계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할 계획이다.

글=김주일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삼국유사 읽는 호텔 윤후명 지음 | 랜덤하우스중앙 펴냄 | 9천원

북녘서 되살려낸 삼국유사



고교시절 '삼국유사' 매력에 빠져 40년간 관련자료 읽고 현장 답사 방북 통해 반쪽짜리 설화적 상상 완성



우리는 걷는다 윤병용 지음 | 효형출판 펴냄 | 9천8백원

이 책은 지난 10년간 우리 땅을 유난히 사랑해온 윤병용(45) 씨를 충북중학교 과학교사의 국토순례기다. 윤 교사가 대학 시절 독일의 청년 여행운동인 '반대 포켓 운동'이 국토사랑을 북돋워 독일 통일에 기여했다는 글을 읽고 흥미를 가졌던 것이 학생들을 우리 국토로 내몬(?) 이유다. 또한 윤 교사는 어떤 일에도 금세 실증을 느끼고 쉽게 포기하는 요즘의 학생들을 안타깝게 여겨왔다.

윤 교사는 1995년 세 번째 근무처인 은곡중학교 재직시절 사고를 우려하던 교장 선생님을 설득해 '국토순례반'을 만들었다. 사전답사도 않고 지도 한 장 달랑 들고 출발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여지껏 중도 탈락자는 1997년 탈수증으로 인한 한 명 뿐이었으니 국토순례의 여정을 되돌려보면 학생들에 대한 보람과 대견함이 교차한다고 윤 교사는 적고 있다.

윤 교사는 초기엔 해를 걸러 국토 종단과 횡단을 번갈아 하다 2001년부터는 강원도 화진포~경기 임진각 350km 코스를 고집한다.

그 후부터 매년 5월 초엔 희망자를 뽑아 매주 산행과 구보로 체력을 키우고, 배낭 꾸리기, 텐트 설치법, 응급처치법 훈련까지 되풀이해 어디든지 떠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았다.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 국토순례

때론 10kg이 넘는 배낭을 지고 여름 무더위 속에 하루 9시간씩 걸기도 했다. 건강할 어른들도 쉽지 않을 여정이었었다.

"그래도 무엇인가 얻는 게 있으니 이 고생을 자처하겠지" 생각하며 책장을 넘기다보면 윤 교사는 책 중간중간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준다. "우선 '우리는 하나'라는 협동심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죠. 때로는 친구의 배낭도 메어주고, 잠자리며 식사를 해결하는 등 포대들과 함께 땀 흘리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몸이 배입니다. 또 눈두렁, 비포장길을 걸으며 야생화를 만나고 밥이면 별풍뎃벌을 하고, 촌로들을 만나 고향 자랑을 듣는 등 자연과 다양한 삶을 만나는 것도 큰 소득이지요. 정서를 풍요롭게 하는데도 그만이지요. 무엇보다 그 긴 거리를 걸어냈다는 성취감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서울까지 250킬로미터를 걸었던 1995년의 첫 횡단, 경남 남해부터 임진각까지 600킬로미터를 걸었던 1996년의 종단, 강원도 화진포부터 강화도 외포리까지 분단의 아픔이 서린 휴전선 인근 민통선을 따라 420킬로미터를 걸었던 1997년의 횡단, 강원도 화진포에서 임진각까지 걸었던 350킬로미터의 2001~2004년의 횡단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지은이는 국토순례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국토순례가 청소년의 바른 성장과 교육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고난의 과정이 많았지만 그를 통해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아이들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참으로 그러하다. 이제까지 국토순례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안타까워하던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교육에 대한 이로서는 아니지만 진정한 전인교육과 산 교육이 무엇인가를 한번쯤 교육자로서 돌아보게 만든다.

■김관호 (춘천 성수고 교사)

불교TV 개국 10주년 크스님 초청특별법회

불교TV에서는 개국 10주년을 맞아 크스님 초청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5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봉행되는 개국 10주년 크스님 초청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기간 : 5월 22일 ~ 7월 10일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장소 : 대한불교 조계종 무상사 법당

문의 : 02) 3270 - 3300



도문스님 네팔콜비나리 대성석가사 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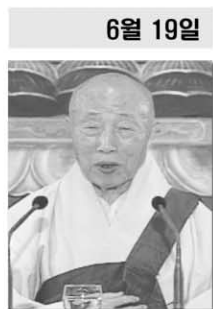
혜초스님 태고종 중정



무진장스님 前 조계종 포교원장



고산스님 쌍계사 조실



성수스님 해동선원 조실



정관스님 부산 영주암 회주



대원스님 공주 학림사 오동선원 조실



정무스님 안성 석남사 주지